

사람들이 두루 어우러지는 법화세계를 꿈꾸다



중국 산둥성 적산문화원에 건립된 장보고 동상. 장보고는 중국 법화원을 설립하는 등 불교에 대한 많은 후원을 한 인물이다.

장보고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중국 한 귀퉁이에 달랑 매달린 흑처럼 보인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세계지도를 몰거나 무 세위보면 그 흑이 태평양을 아우르는 허브(hub)가 된다. 오래전 바다로 뻗어 나가 그 가치를 실증했던 사람이 있다. 1200년 전 안도 청해진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주름잡던 해상왕 장보고(?~846년).

장보고는 8세기 말(통일신라)에 안도 부근 한 섬에서 태어났다. 망한 나라 백제 후예로, 어려서부터 무예가 뛰어나고 수영에도 익숙했다. 9세기 초, 세계 중심국인 당나라로 건너간 장보고는 신라 사람이 좀처럼 오를 수 없는 무령군 군중소장에 오른다. 군중소장은 일천 군사를 거느린 장수. 그러나 외국인이 평화 시기에 군에서 더는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미련 없이 군을 떠난다. 827년부터 8년 동안 당나라에 있는 신라사람 자기기구인 신라소와 신

해상권 장악하여 백성 보호

북아시아를 하나로 인식하고 활동

바다 수호에서 탈피 적극 개척

각국 인권 수단으로 불교 활용

라방 행정 책임자가 되어,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라사람 권익과 복지를 위해 힘쓴다. 신라방에는 연안 운송업을 하는 이들과 아라비아, 페르시아 상인들과 교역을 하고 신라와 일본을 오가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미국 어시누스대 클라크 교수 황해사, 전략 관점에서 천재성 찬탄

그 무렵 당나라나 신라 모두 중앙 집권력이 힘을 잃고 흉년과 기근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도적들이 날 났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무역선들은 해적 위협에 등쌀을 앓았고, 해적들이 신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붙들었다 당나라에 노비로 팔았다. 비참하게 팔려가는 동포를 보고 분개한 장보고는 해적들을 몰리치고 나아가 해상권을 통괄하여 세력을 키워나갔다.

장보고는 중앙집권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끼리 긴장이 풀리면서 조공무역이 점차 줄어들고 민간무역 시대가 오리라고 내다봤다. 그 바탕에서 중국 양주에서 일본 카타까지 섬과 대륙으로 둘러싸인 북아

아를 하나로 묶어 바라보았다. 그래서 산둥반도 등주 적산포와 대운하가 만나는 수운요충지 조추를 거점으로 삼아 해안 근거지를 만들고 신라 서남해안해양세력을 아우르면서, 일본 규슈일대에 주둔지를 구축해 북아시아 해상무역을 이끌었다.

아울러 흥덕왕 3년(828) 신라로 돌아와 안도에 청해진(淸海鎮)을 건설, 무역선을 보호하고 해적을 치겠다는 뜻을 밝힌다. 완도 앞바다는 다도해 암초, 밀물과 썰물, 육지와 부딪쳐 소용돌이치는 해류, 계절에 따라 바뀌는 해풍으로 변화가 많은 천연 요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어시누스 대학 클라크 교수는 황해사나 전략 관점에서 완도 중요성을 짚으며 장보고 천재성을 찬탄했다. 때마침 신라조정은 지방 세력이 함부로 날뛰어 권위가 떨어지고 재정마저 어려워 장보고 군사력과 재력이 절실했다.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청해진 대사(大使)라는 신라관직에는 본디 없던 직함을 만들어주면서 손을 잡았다.

청해진 대사가 된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고 무역을 장려해 북아시아 해상을 지배했다. 그는 신라, 당, 일본 항로 요충인 청해진을 군사, 선단, 항만, 조선, 항해 전문가, 통역관, 종교 시설이 결합된 복합 군진으로 위치시켰다. 또한 청해진은 신라 정부세력에서 벗어나 어느 부분 독립 행정과 경영 체제를 유지해 점차 북아시아 교역 중심지가 되었다. 이곳은 일본과 당나라 상인들은 물론이고 멀리 아라비아와 페르시아 상인까지 드나드는 국제해상무역 허브였다. 청해진은 군(軍) 산(産) 상(商) 복합체, 종합상사였다.

장보고 이전 신라는 바다와 친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워했다. 삼국유사 수로부인전에도 바다에 사는 용에게 납치된 얘기가 나오듯이, 신라 사람들은 바다로 나아가기보다, 바다로 침입해오는 무리를 막으려고 애썼다.

문무왕(文武王)이 “내가 죽거든 바다에 장사를 지내라. 그러면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유언을 남긴 까닭도 예제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바꿔 말하면 신라는 대륙보다 바다를 타고 들어오는 문화와 접촉이 잦았다는 이야기다. 가야 수로왕비 허황후는 서남쪽 바다에서 배를 타고 온 아유타국 공주이고, 탈해도 배를 타고 먼 길을 온 용성국(龍城國) 왕자라 했다. 석굴암 건축양식 또한 로마에서 성행한 돛양식이었던 것으로 비추어 봐도 신라는 해양 국가성향이 짙었다. 그러나 들어오는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 밖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바다를 지키는데서 벗어나 바닷길을 연

사람이 장보고였다.

1만 군사 확보해 군사력 바탕 해상교역 주도

모범 농업국가로 꼽히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가장 변화한 광장에 자랑스럽게 서 있는 동상은 다름 아닌 도독상이다. 뿔나팔을 불며 도독질하려 가는 바이킹이 새겨져 있다. 세계에서 으뜸가는 복지를 자랑하는 스칸디나비아 나라 문화는 모두 해적문화에서 출발했다. 그뿐 아니라 영국, 포르투갈 같은 나라 배들도 교역과 해적질을 번갈아가며 했다. 그러나 신라사람 장보고는 달랐다. 해적들을 궤멸시키고 상인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은 보호했다.

장보고는 1만 군사를 확보해 영해라는 의식조차 희박하던 시절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상교역을 주도했다. 바다를 향한 신라 사람들 열정은 장보고 이전 시대부터 계속돼 왔으며, 신라 ‘선박 우수성’은 멀리 일본에까지 알려졌다. 아울러 장보고는 서해 연안, 대한해협 물길을 모두 알

고 있던 신라 사람들을 조직화하여 항선관리를 일원화했다. 그랬기에 일본 민간인과 국가 사절들은 대외교류에 장보고 휘하 배들을 이용했다. 무엇보다 장보고는 열린 사람이었다. 청해진 중심 해상체제 국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해진 활동에 당과 일본을 참여시키려고 장보고는 불교를 신라, 당, 일본을 잇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삼아 국적을 뛰어넘는 가치체계를 확립했다. 그래서 중국 산둥성에 적산법화원, 안도 상왕봉에 법화사를 창건했다. 아울러 제주도 법화사와 일본 법화원도 만들었다고 알려진다.

〈법화경〉은 어떤 경전인가? 법화경은 대승경전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말로 모든 불교종파와 사조를 두루 감싸 안은 첫 번째 경전이다. 핵심 가치는 원융회통(圓融會通)으로 초기불교 성문 전통과 대승불교 보살도를 두루 아울러 화해를 이뤄낸 일승(一乘) 경전이다. 중도와 융합, 일치를 기치로 번 법화경은 비구와 비구니, 재가불자를 아우르는 승가를 이루는 초석이 된다.

국적 뛰어넘는 열린 사고

제주 법화사 중국 법화원 창건

권력 다툼 휘말려 암살 당해

장보고 정신 21세기에 되살려야

장보고가 꿈꾼 세상은 사람들이 두루 어우러지는 법화세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을 피우다 말았다. 신라 민예왕을 폐하고 신무왕을 즉위시키는 정변에 개입한 장보고는 중앙정계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어이없게 암살당했기 때문이다. 장보고가 죽은 뒤 신라 국제교역은 단절되고, 신라 사람들은 북아시아 해상 패권을 송나라 상인들과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그 뒤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에서 해상 경영은 끊임없이 후퇴했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 조선은 서양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속수무책이었다.

우리 안에 잠자는 장보고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도인 우리나라는 대륙 국가이자 해양 국가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해양 국가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다. 다행스럽게도 21세기 세계 조선업을 이끄는 선도국이 된 밀바탕에 면면히 흐르는 해상왕 피가 살아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상왕 장보고는 잠자고 있다. 우리 안에 잠자는 장보고를 깨워 일으키려면 21세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남북)이 약 10만km²인데 중국은 960만km², 일본은 37만km²이다. 중국은 한국보다 96배나 넓고 일본은 4배가 가깝다. 그리고 해안선 길이는 중국이 1만8000km, 일본은 1만3000km인데 한국은 1만1500km이다. 땅덩어리는 중국보다 턱없이 작지만 해안선 길이는 조금 짧을 뿐이다. 긴 해안선은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이며 축복이다. 21세기 바닷길을 여는 방법은 장보고 시대보다 폭이 넓고 깊다. 세계를 잇는 허브가 되는 길뿐 아니라, 해양을 개발해 먹을 거리를 생산해 내거나, 자연에너지를 개발할 수도 있다. 에너지 개발 보기를 하나만 든다면, 앞 시대를 이끌어 갈 기술 가운데 하나가 ‘조류(藻類, Algae)’다. 세계엔 10만여 종 조류가 있다. 육수수 대신 조류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대가 곧 닥친다. 우리나라는 육수수를 한 해 동안 한번, 일모작할 뿐이다. 그러나 조류는 하루 또는 몇 시간 만에 다시 생산이 가능하다. 게다가 육수수는 10에이커에서 370에이커를 생산할 뿐이지만, 조류는 1만에이커에서 10만에이커를 생산할 수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조류 미생물 (Algae microorganism) 분야는 중요한 기술 화두이다.



변택주(연구소통 소장)

185회 새해맞이
개달은 3000배

부처님은 낯알고 낯보고 계셔!

새해 첫 날, 첫 시간 0.1초부터 부처님께 성스럽고 고귀한 마음으로 공경, 찬탄, 감사의절, 예불예경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염불 빨리 경전 읽기, 보시, 선행으로 악업을 닦고 복짓고 복받는 개달은 3000배 용맹정진

◆날 짜 : 12월 31일(토) 저녁 9 ~ 1월 1일 아침 7시

◆준비물 : 동참비 3만원 (수련복, 기도포, 수건)

◆장 소 : 법왕정사 서울숲 법당 (2호선 독성역 8번 출구 하나은행 5층)

서울숲 법당 02)456-0035
홈페이지: www.법왕정사.net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회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 종합반 : 10인 이내
-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 기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 장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원장 우물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사) 한국산업기술평화지원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호선 종로 3구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한방(韓方)치료로

간 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학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26-중-4825호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더 말이 필요없는 한상의 통증치유 S.T.T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매월 첫주 시작 4회 완성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